

“지역 중소기업 ‘혁신제품’·‘벤처나라’ 적극 활용하길”

광주일보가 만난 경제사

김종열 광주지방조달청장

기업가, 특히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과의 거래를 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나라장터(www.g2b.go.kr)를 모를 수 없다. 나라장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군수품을 제외한 물자 구매·공급 및 관리와 정부의 주요 시설 공사계약까지 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처음에는 다소 어려움을 겪다가도 한 번 적응이 된 이용자들은 신속하고 투명한 거래에 상당히 만족한다고 한다. 여성기업, 혁신·우수기업 등에 대한 혜택도 있어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면서 누구나 공공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개방되어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지난 2002년 구축돼 올해로 22년째를 맞는 나라장터는 입찰·계약·지불이 모두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수시 구매가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종합쇼핑몰도 갖추고 있다. 종합쇼핑몰에는 1만 2800개 기업에서 88만여 개가 넘는 상품이 등록되어 있다. 특히 공공입찰에 참가하기 위해 조달청에 등록된 57만여 조달기업 가운데 96.7%가 중소기업이라는 점은, 이 같은 국가 시스템이 판로 개척과 공공기관 진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조달청에 따르면 지난해 나라장터를 통한 공공



조달 거래 규모는 143.2조원으로 국가예산(639조원)의 22.4%에 달한다. 역사적으로 조달청은 우리나라의 모든 것이 열악했던 해방 직후 미국 등 외국 원조 물자 관리를 위해 1949년 1월 신설된 임시외자총국을 그 모태로 하고 있다. 몇 차례의 명칭 변경, 기능 통합 등을 거쳐 1961년 10월 정부조직법 전면 개정과 함께 조달청이 되었다. 조달(調達)은 일반적으로 자금이나 물자를 대어주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 가족, 단체, 조직, 기업 등 모두의 일상에서도 조달의 중요성은 두 번 강조

지난해 광주청 계약금액 4조원 넘어서...90% 이상 중소기업 수주 국가 조달 시스템 국가 예산 절감하고 중소·지방·여성기업 각종 혜택

할 필요도 없다. 어떻게 보면 조달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기능일 수도 있다는 의미다. 광주·전남을 총괄하고 있는 김종열(58) 광주지방 조달청장을 만나 국가 조달 시스템의 현재와 미래, 지역 기업들을 위한 조언, 지역 기업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들었다. 그는 전북 남원 출신으로, 1997년 7급 공무원으로 조달청에 들어와 27년만인 지난 2024년 2월 청장에 부임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광주조달청은 어떤 기관인가.

▲직접 일반 국민을 상대하는 기관이 아니어서 조달 기업이 아니면 다소 생소할 수 있다. 그러나 매일 우리가 일상에서 대하는 보도블럭, 신호등, 가로등, 공원의 체육시설, 파출소 건물 등 공공시설 대부분은 조달청 계약담당자의 손을 거쳐 설치된 것이다. 조달청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7만여 수요기관과 58만 조달 기업의 접점에 자리하며 물자 및 서비스, 시설공사 등의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외에도 알루미늄 등 주요 원자재 비축사업, 국유재산 관리, 전자입찰시스템인 나라장터 운영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광주지방조달청은 조달청의 11개 지방청 가운데 하나로 광주·전남의 공공기관을 위해 다양한 계약업무를 수행하면서 조달청의 정책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난해 광주청 계약 금액이 4조원을 넘어서다

고 들었다. ▲그렇다. 지역기업들이 본청과 직접 계약한 건을 제외하고 광주청을 거쳐 계약한 것이 4조원을 넘었다. 열악한 경제 여건에서 대단한 선전이다. 이 가운데 90% 이상을 지역 중소기업이 수주했다. 2014년 혁신도시가 조성되어 공공기관들이 입주하면서 공공조달 물량이 늘어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 2차 공기업 이전 등으로 더 다양한 공공기관들이 생긴다면 물량은 더 증가하고 그만큼 지역기업들도 혜택을 볼 것이다.

-이러한 국가 조달시스템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인가.

▲각국마다 조금씩 다르다. 미국과 유럽의 상당수 국가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공공조달 정부 기관이 있고, 일본의 경우는 없다. 독일은 정부 부처별로 조달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자랑스러운 조달청의 존재가 압축 경제 성장 속에 부정부패를 대폭 줄이면서 공공기관의 물품·서비스 조달 및 공사계약 과정에서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여줬다고 자부한다.

-조달청을 더 자랑할 시간을 드리겠다.

▲그동안 국가 조달 시스템은 우리나라가 발전하는데 있어 몇 가지 역할을 담당해 왔다. 대표적인 것이 대량 구매 및 철저한 가격 조사를 통해 정부 예산을 절감하고, 대형 국책공사의 경우 사전설계 검토로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하게 했다는 점이

다. 또 경기 조절, 고용 증대 등을 통해 정부 정책을 지원함과 동시에 중소기업·지방기업·여성기업 등에게 상당한 혜택도 주고 있다. 최근에는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공성과 혁신성을 보유한 혁신제품에 대해서는 조달청의 예산으로 시범구매하는 등 첫 번째 구매자로서 판로도 지원한다.

-조달청의 변화를 짧게 설명한다면.

▲조달청의 변화는 지난 2002년 전자입찰시스템인 나라장터를 개통하면서 시작했다. 우리나라 조달 행정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고, 이 성과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나라장터의 수출로까지 이어졌다. (여담이지만)과거 나라장터 수출 실무자로 일하면서 코스타리카 당국자와 긴 협상 끝에 수출에 성공했던 기쁨은 다시 생각해도 대단했다. 최근에는 단순히 입찰 경쟁이라는 단순 경제성 원칙에서 벗어나 '전략적 구매'에도 힘을 쓰고 있다. 공공기관이 최초 구매자(First Buyer)가 되는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혁신조달제도)이 그것이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이 가능해진다.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유도하면서 동시에 우수한 기술제품을 개발하고도 초기 어려운 시기를 못 버티고 폐업하는 것을 예방해 주는 효과가 있다.

-광주·전남의 제조업은 타 지역과 비교해 매우 열악하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인터뷰 전문은 인터넷 광주일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응우옌 푸 쯙 베트남 서기장 조문

한·베트남 경제협력위원장

“양국 비즈니스 파트너십 강화”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최근 별세한 응우옌 푸 쯙 베트남 서기장을 조문했다.

28일 HS효성에 따르면 조현상 부회장은 지난 26일 경영진들과 함께 서울시 종로구 주한 베트남 대사관을 찾아 지난 19일 별세한 응우옌 푸 쯙 베트남 서기장에 대한 조의를 표했다.

한·베트남 경제협력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 부회장은 이날 부호 주한 베트남 대사관을 만나 “베트남 발전에 헌신하신 당시기금의 영면을 기원한다”며 위로를 전하고 “양국의 발전을 위해 한·베트남 경제협력위원장으로, 한국 경제인들과 HS효성 가족들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조 부회장과 쯙 서기장의 인연은 고인이 한국을 방문한 지난 2014년 시작됐으며, 이후 두 사람은 한국과 베트남의 경제 협력과 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하며 양국간 교류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 부회장은 지난 3월 한·베 경제협력위원장을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서울 종로구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 마련된 고(故) 응우옌 푸 쯙 베트남 서기장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HS효성 제공)

로 선임되는 등 HS효성의 타이어코드 등 기존 첨단소재와 서플라이체인 매니지먼트(SCM)를 위한 비나물류법인 설립 및 최근 탄소소염유공장 건립을 추진하며 베트남 현지 투자와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조 부회장은 “양국의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미래 협력방향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할 수 있도록 기업 및 정책 당국과 폭넓은 교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연두색 번호판 도입 6개월간 1만 2621대 부착...제네시스 G90 최다

수입차 8233대로 65.2%

법인 승용차 전용 연두색 번호판 제도가 도입된 뒤 전국에서 1만 2000여대의 차량이 이 번호판을 새로 단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8일까지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한 법인 승용차는 총 1만 2621대로 집계됐다. 국산차는 4388대(34.8%), 수입차는 8233대(65.2%)로 나타났다. 단일 모델 차량 중 연두색 번호판을 가장 많이 부착한 모델은 제네시스 G90이었다. 이른바 ‘회장님 차’로 불리는 G90은 2801대(통틀베이스 모델 133대 포함)였다.

국산차 중에서는 제네시스 GV80(853대), GV80 쿠페(392대) 등도 많이 등록됐다.

수입차 브랜드 중에서는 메르세데스-벤츠가 3366대로 최다였고, BMW가 2451대로 뒤를 이었다. 각 브랜드에서는 벤츠 S500 4MATIC

(401대), BMW 740i xDrive(439대) 등이 연두색 번호판을 많이 달았다.

연두색 번호판 차량을 가격대별로 보면 8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이 4247대(국산 2636대, 수입 1611대)로 33.7%를 차지했다.

1억원~1억 2000만원은 3284대(국산 1423대, 수입 1861대)로 26%, 1억 2000만원~1억 5000만원은 2325대(국산 230대, 수입 2095대)로 18.4%였다. 1억 5000만원이 넘는 차량은 2765대(21.9%)로, 이 중 국산차는 99대(제네시스 G90 통틀베이스)였다. 지역별로는 부산에서 2588대(20.5%), 인천에서 2473대(19.6%)가 등록됐으며, 경남(1625대), 제주(1434대), 경기(1207대), 서울(1129대)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차를 새로 등록할 때 차량 가격의 일정 비율로 공채를 사야 하는데, 공채 매입 요율이 특히 낮은 부산과 인천 등에 ‘원정 등록’이 이뤄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스타트업 IR 챌린지’ 성료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이 28일 “지난 25일 광주시 동구 전일빌딩245 다목적 강당에서 ‘2024 스타트업 IR(투자 유치) Challenge’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소재 콘텐츠 분야 스타트업

과 ICT(정보통신기술)·콘텐츠 융합 분야 창업 5년 이내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한 스타트업 IR 행사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권역에서 보육 및 육성 중인 입주(졸업)기업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초중반 벤처기업들의 성장을 위해 자본 유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VC(벤처캐피탈)·AC(액셀러레이터)·개인투자자 등이 각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했고, 현장에서는 벤처기업과 투자자 간 1대1 매칭 비즈니스 상담회를 개최해 사업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코칭 기회도 제공됐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전남 3개 업체 제품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

조달청의 2024년 제2차 혁신제품 지정 심사에서 광주·전남지역 3개 기업의 제품이 혁신제품으로 선정됐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혁신제품 지정 제도는 공공부문에 혁신제품의 첫 번째 구매자가 돼 기술혁신·초기시장 창출 등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공공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번에 지정된 제품은 ▲유한회사 마나의 황토를 사용한 건축물 내부 마감재로 단열과 내구성이 강화되고 광촉매를 활용하여 대기오염 물질을 분해하며 준분별 성능이 강화된 ‘광촉매 황토보드’

▲주식회사 에스엔시의 미세먼지와 공기 중 오염 물질을 분해하는 광촉매 기술이 적용된 ‘광촉매 항균 방충망 결합 창호’ ▲주식회사 에스엠테크의 예측수위 전송과 컨트롤러 고장 시 기능 대체가 가능한 인공지능 수위조절기가 적용된 ‘자동제어반’ 등이다.

김종열 청장은 “혁신제품이 중소기업으로 거듭나는 성장 사다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조달청도 수요기관에 혁신제품을 적극 홍보하여 판로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광주은행 법인 고객 전용 ‘법인파트너 적금’ 출시

광주은행이 28일 거래 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법인 전용 적금 상품인 ‘법인파트너 적금’을 출시했다.

법인파트너적금은 일반 법인부터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임의단체까지 모두 가입 가능한 상품으로, 광주은행 각 영업점 창구와 인터넷뱅킹을 통해 가입 가능하다.

가입기간은 6개월 이상 36개월 이하로, 최소 가입 금액은 10만원이다.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는 1년제 정액적립식 기준 연 2.9%, 자유적립식의 경우 연 2.7%이며, 최대 연 0.8%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받아 각각 연 3.7%, 연 3.5%까지 금리가 적용된다.

우대금리는 ▲급여이체 위탁계약이 체결된 법인의 급여이체실적 10회 이상(계약기간 1년 미만인 경우 5회 이상) 시 연 0.3%포인트 ▲요구불결제 평균잔액에 따라 최고 연 0.3%포인트 ▲산용

(체크)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최고 연 0.2%포인트가 적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광주은행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박문수 광주은행 데이터상품전략부장은 “광주은행을 이용하는 법인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법인파트너적금’을 출시하게 됐다”며 “편의성을 높인 기업금융 서비스와 더불어 수수료 면제, 우대금리 등의 혜택을 통해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출시된 법인파트너통장은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상품으로, 매월 말일 기준 평균 잔액 300만원 이상 유지 시 기업뱅킹 타행이체 수수료를 최대 200회,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수수료 및 해당 계좌 입출금 내역 자동통지 서비스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신세계 ‘대학생 현장실습 교육’ 마무리

광주신세계가 ‘대학생 현장실습 교육 프로그램’ 4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앞서 광주신세계는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25일까지 지역 대학생 11명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시작한 바 있다. 올해로 3회차를 맞은 현장실습 프로그램은 기존에는 전남대 학생만 참여가 가능했으나, 올해 더 많은 지역 인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선대까지 범위를 확장해 진행했다.

프로그램에 선정된 11명의 학생들은 백화점 투어를 시작으로, 신입사원 멘토링, 영업현장 실습 등을 경험했다. 또 실습과 함께 진행한 조별 과제에서 유통업계에 대한 발표를 진행해 MZ세대의 신선한 아이디어를 듣는 시간도 마련됐다. 프로그램 마지막 날에는 실제 모의면접을 진행해 유통업계에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기도 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임은서(여·22) 조선대 학생은 “유통업에 대해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 부서를 경험해볼 수 있어 좋았

다”며 “MD 유치, 팝업 기획부터 마케팅까지 다양한 분야의 실무경험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로또복권 (제 1130회)

당첨 번호	2등 보너스숫자
15 19 21 25 27 28	40
등위	당첨금(원)
1 6개 숫자일치	2,263,301,219
2 5개숫자 + 보너스숫자일치	65,602,934
3 5개 숫자일치	1,560,898
4 4개 숫자일치	50,000
5 3개 숫자일치	5,000